



강북구의회
GANGBUK DISTRICT COUNCIL

의정활동보도

2015년 6월 1일
(월요일)

강북신문 5면

강북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·운영 조례 개정안 발의

구본승 의원, 단원 자격에 구 소재 사업장 종사자도 포함 확대해

구본승 강북구의회 행정보건의료위원장은 제 189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지난 5월 26일에 개최된 행정보건의료위원회에서 5월 15일에 발의한 '서울특별시 강북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'을 제안설명했다.

이번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구립 문화예술단체(여성합창단, 청소년오케스트라, 실버합창단)의 단장을 기존의 행정관리국장에서 부구청장 또는 외부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할 수 있도록 했다.

또한 강북구에 소재하는 사업장에 종사하



는 사람도 단원이 될 수 있도록 단원의 자격 요건을 확대했다. 이날 행정보건의료위원회에서 수정동의된 조례개정안은 6월 1일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최종 처리할 예정이다.

이에 대해 구본승 의원은 "구립 문화예술단체가 보다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, 강북구에서 일하는 종사자들도 단원이 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"고 말했다.

북부신문 7면

강북구의회, 강북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·운영 조례 개정안 상정

구본승 의원, 단원 자격에 구 소재 사업장 종사자도 포함, 확대해야

구본승 강북구의회 행정보건의료위원장(미아, 송중, 번3동)이 제189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인 지난 5월 26일 행정보건의료위원회에서 5월 15일 발의한 '서울특별시 강북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'에 대해 제안 설명을 가졌다.

이번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구립 문화예술단체(여성합창단, 청소년오케스트라, 실버합창단) 단장을 기존의 행정관리국장에서 부구청장 또는 외부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할 수 있도록 한 것.

또 강북구에 소재하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도 단원이 될 수 있도록 단원의 자격 요건을 확대했다. 이날 행정보건의료위원회에서 수정동의된 조례개정안은 1일 제3차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처

리된다.

구본승 의원은 "구립 문화예술단체가

보다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, 강북구에서 일하는 종사자들도 단원이 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"고 말했다.



강북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하고 있는 구본승 의원.

구본승의원...강북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운영 조례 개정안 발의



구본승 강북구의회 행정보건의원장(미아, 송중, 번3동)은 제189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지난 5월 26일에 개최된 행정보건의원회에서 5월 15일에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 설명하였다.

이번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구립 문화예술단체(여성합창단, 청소년오케스트라, 실버합창단)의 단장을 기존의 행정관리국장에서 부구청장 또는 외부전문가 중에서 구청장

이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다.

또한 강북구에 소재하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도 단원이 될 수 있도록 단원의 자격요건을 확대하였다.

이날 행정보건의원회에서 수정동의된 조례 개정안은 6월 1일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최종 처리할 예정이다.

이에 대해 구본승 의원은 "구립 문화예술단체가 보다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, 강북구에서 일하는 종사자들도 단원이 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하였다."고 말하였다.

강북구립문화예술단체 설치·운영 조례 개정안 발의

단원 자격에 구 소재 사업장
종사자도 포함, 확대해

구본승 강북구의회 행정보건의원장(미아, 송중, 번3동)은 제189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지난 5월 26일에 개최된 행정보건의원회에서 5월 15일에 발의한 『서울특별시 강북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을 제안 설명하였다.

이번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구립 문화예술단체(여성합창단, 청소년오케스트라, 실버합창단)의 단장을 기존의 행정관리국장에서 부구청장 또는 외부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다.

또한 강북구에 소재하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도 단원이 될 수 있도록 단원의 자격요건을 확대하였다. 이날 행정보건의원회에서 수정동의된 조례 개정안은 6월 1일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최종 처리할 예정이다.

이에 대해 구본승 의원은 "구립 문화예술단체가 보다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, 강북구에서 일하는 종사자들도 단원이 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하였다."고 말하였다.



▲ 구본승 의원.

구본승 강북구의원

강북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·운영 조례 개정안 발의!



구본승 강북구의회 행정보건의료위원장이 지난 달 26일 개최된 행정보건의료위원회에서 5월 15일에 발의한 『서울특별시 강북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을 제안 설명했다.

이번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구립 문화예술단체(여성합창단, 청소년 오케스트라, 실버합창단)의 단장을 기존의 행정관리국장에서 부구청장 또는 외부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.

또한 강북구에 소재하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도 단원이 될 수 있도록 단원의 자격 요건을 확대했다. 이날 행정보건의료위원회에서 수정동의된 조례 개정안은 6월 1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됐다.

구본승 의원은 “구립 문화예술단체가 보다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, 강북구에서 일하는 종사자들도 단원이 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.”고 말했다.